

“90만원 턱걸이 벌금” 재판부 규탄

대구 시민단체, 검찰 규탄
100만원 미만죄 ‘현직 유지’
“검찰·재판부 사법 정의틀...”

대구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무효를 비껴갈 수 있도록 ‘턱걸이 벌금’을 물린 검찰과 재판부를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150만원 구형, 재판부의 90만원 벌금”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기소된 피고인들의 양형 기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2일과 5월 5일에 본인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순현찬 부장판사)는 11월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당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1일 검찰은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 의원 5명에게도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강은희 교육감 역시 2차 공판기일을 재판부와 흥정하다시피 한 결과 내년 1월14일로 잡았다”면서 “단체장이 여유만만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재판부의 면죄부 판결 때문이다”라고 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홍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검찰과 사법부가 아무리 엄중 처벌을 말해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해 오사다”라며 “검찰과 재판부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조여은 기자

‘컬링계 떠나겠다’던 김경두 일가...월급 받아

비급여직 2명만 사표 제출
말 뿐인 사퇴... 의구심 일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 ‘팀킴’의 갑질 폭로 이후 이들의 훈련장인 의성컬링훈련원의 출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갑질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컬링계를 떠나겠다고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의 가족들이 이번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컬링계에 몸 담고 있는 김 전 부회장의 일가 중 지난 4월 김 전 부회장의 사퇴 발표 이후 지금까지 비급여직 2명만이 사표를 제출해 ‘말 뿐인 사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26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 전 부회장의 딸 김민정 감독을 비롯해 사위 장반석 감독, 아들 김민찬 선수에게 급여가 지급됐다.

이들 중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직까지 지도자와 선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부회장 일가 중 ‘갑질 파문’ 이후 지금까지 사표를 낸 사람은 부인 양영선 대구컬링협회 부회장, 동생 김경석 대한컬링 중고연맹 사무국장 등 2명이다. 이들은 월급이 없는 직책이다.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김민정 감독 등 3명

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지도자와 선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달 급여는 원칙대로 제 때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난 여론이 있지만 체육회에서 이들에게 사퇴를 종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갑사가 마무리돼 결과가 발표되면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의 사위 장반석 감독은 이에 대해 “저는 이달 중에 계약이 종료된다. 다른 사람들 입장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 일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여자 컬링팀 ‘팀킴’에 대한 갑질 파문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한 달여간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의 합동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는 빠르면 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박재성 기자

성추행한 한국가스공사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공표했지만 경징계 그쳐

있단 성희롱으로 말썽을 빚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간부가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또 발생했으나 자체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의 복무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차장은 지난 9월 4일 오후 모식당에서 여직원 B씨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차장은 피해 여직원이 ‘아 이러면 성희롱이다’고 경고했지만 회식자리가 이어진 노래방에서도 어깨동무를 하기 위해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터치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차장은 특히 성희롱에 대해 여직원이 항의하는 등 문제가 되자 6일 후인 10일 여직원 B씨에게 사과했지만 B씨가 “왜 손등에 뽀뽀를 하였나”라고 묻자 “살결이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서 솜사탕 같아서 그랬다”며 또 다시 성희롱 발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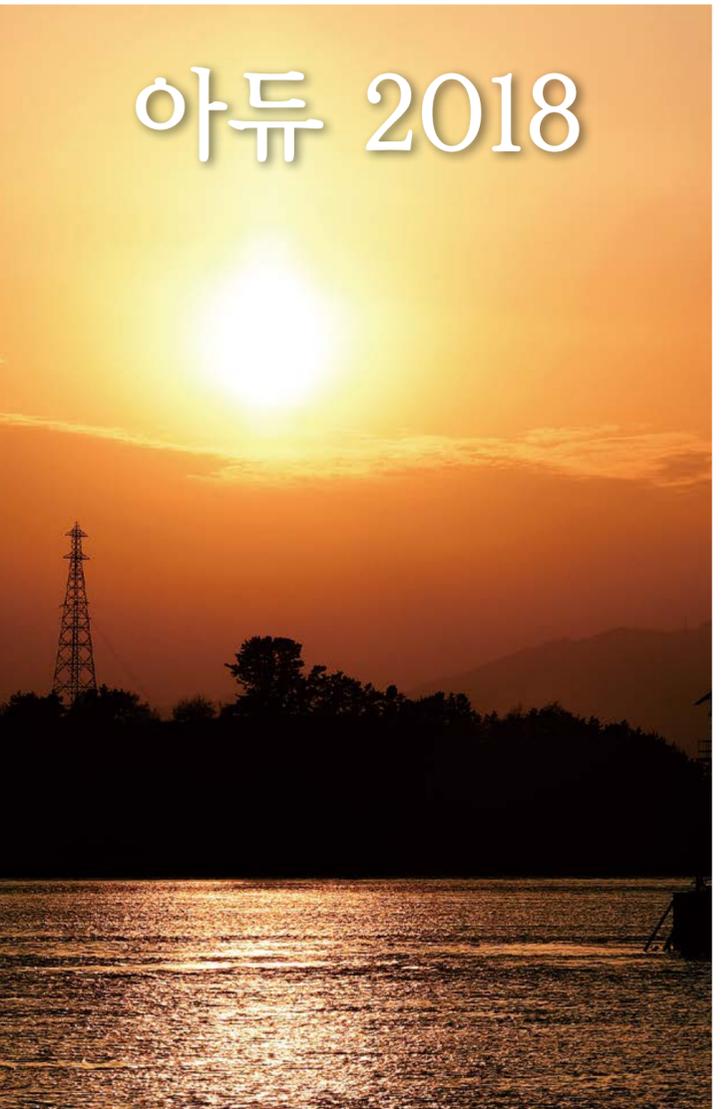
A차장은 여직원 B씨의 피해에 대해 친근감의 표현일 뿐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한국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A씨의 주장이 변명에 불과하고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처벌은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였다. 기동감찰단은 A씨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성폭력·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징계수위는 ‘감봉’을 제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승일 전 사장 재임 당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홍보담당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반드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규의 징계기준은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에 따라 다른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D부장이 부하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지난 3월 징계를 받았다. 최경수 기자



아듀 2018

아쉬움을 간직한 석양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닷새 남은 26일 오후 경남 사천시 실안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석양이 아쉬움을 간직한 채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저물고 있다.

‘추위에 쫄쫄’ 경북 10개 시·군 한파주의보 발령

건강관리에 유의 당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경북에 한파주의보의 보가 내려졌다.

26일 대구기상지청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문성,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군위, 봉화평지, 영양평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거나 평년보다 기온이 3도 이상 낮을 때 내린다.

울릉도와 독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의성 영하 10도, 청도·안동 영하 7도, 대구·경주 영하 5도,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2도 등이다.

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한파주의보가 내



7일 오후 대구 중구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마련된 신천 스케이트장에서 시설공단 관계자들이 개장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결빙작업을 하고 있다.

려진 지역은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구 기자

春

2015년 제 9회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입선
김석철 작품명: 봄

夏

2011년 제 5회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입선
최영득 작품명: 청명한 들녘

秋

2012년 제 7회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우수상
윤상진 작품명: 가을 속으로

冬

2013년 제 7회 농촌경관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윤석량 작품명: 장독대 풍경

사시사철 아름다운 농촌 농협이 함께 합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2018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우리 농촌! 농촌이 아름다워질수록 농업인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농협은 마을 벽화 그리기, 꽃밭조성, 노후주택 개·보수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언제나 찾아가고 싶은 농촌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올해도 찾아온 '대구 키다리아저씨'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주세요”
1억2100만원 성금 기부
지금까지 9억6000만원 기부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멈출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지난 24일 저녁 대구 동구의 한 매운탕집에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들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60대 남성이 건넨 봉투에는 1억 2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지역내에서 키다리아저씨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9억6000만원 가량을 어려운 이웃 돕기에 선뜻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을 모으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며 혼자 나눔으로는 부족하고 더 밝고 따뜻한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달라는 부탁도 함께 전했다

그의 옆을 지킨 부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녀는 “우리 남편이 어릴 적 꼭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남들을 돕는데 더 앞장서는 것 같다”라며 “우리 주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는 3평도 안되는 단칸방에서 시누이와 함께 결혼생활을 시작했다”며 “아직

도 갖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가졌기에 나머지는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2012년 1월 대구공동모금회 사무실을 방문해 익명으로 1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그해 12월 1억2300만원, 2013년 12월 1억2400만원, 2014년 12월 1억2500만원, 2015년 12월에는 1억2000만원, 2016년 12월에 1억2000만원, 2017년에는 1억2100만원씩 돈을 냈다.

7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9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대구에서 개인 기부자가 낸 기부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이회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올해도 잊지 않고 거액의 성금을 기부 해주신 키다리아저씨에게 대구의 소외된 이웃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소중한 성금을 대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나눔으로 더 따뜻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충희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 “초심으로 혁신을 이루겠다”

권영진 대구시장
내년도 시정목표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 시정 목표로 경제 활성화와 끊임없는 혁신을 내세웠다.

권 시장은 26일 대구시청에서 가진 송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이스라엘 IMC그룹 투자 유치, 미래형차·물·의료·로봇·에너지 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확대,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등을 내세웠다.

권 시장은 내년도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골목경제와 전통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구조 혁신의 토대 위에 5대 신성장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충희 기자

혁신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공간, 시간, 지식의 벽을 허물어야 외부의 혁신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인사혁신, 조직혁신, 일하는 문화혁신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와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대구경북상생장터 개설, 공동 관광기금 조성, 공무원교육원 통합,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지역 현안인 대구공항 통한 이전에 대해 권 시장은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며 “민간 및 군공항 통합이전은 필수적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충희 기자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도시로 거듭나길...

실패 자산의 날 행사 개최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해
실패 넘어 성공 인식 전환

대구시는 26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실패 자산의 날’이라는 행사를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해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실패를 넘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장

으로 마련됐다.

첫번째 강연은 ‘실패는 성공의 바로 전 단계이다’란 주제로 KBS 개그맨 출신 권영찬 대표가 실패를 통한 자산을 어떻게 삶의 성공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최덕립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생각하는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두번째 강의를 이어갔다. 그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세번째로 현대그룹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쌓은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을 위대한 기회로’라는 주제로 임덕정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자산화해 성공한 대구 청년 기업가 추현호 대표가 ‘실패는 꿈을 찾는 나침반’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이후 실패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실패를 하지 않은 방법, 실패를 극복한 방법 등에 대해 자신들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토의하고 발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실패자산의 날 행사는 실패로 좌절했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청년, 기업가, 시민들에게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충희 기자



딱딱한 종무식 대신 특별한 연말 사회봉사

대구시 달서구가 뽀하고 틀에 박힌 종무식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26일 달서구에 따르면 직원 200여명은 오는 27일까지 이틀간 복지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한다.

관행적인 종무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취지다.

직원들은 말반찬을 포장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에 직접 배달한다.

직원사회회는 노인정 등을 찾아 지역사회와 따뜻함을 나눈다. 심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노인 1600여명에게 호빵과 음료 등의 간식을 대접한다. 달서구는 2008년부터 종무식을 없애는 대신 저소득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박준범 기자

대구시, 국·과장급 조직개편 후속 인사 단행

국장급에 여성간부 2명 중용
대구시 개정 이래 최대 규모

대구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국·과장급 간부인사 및 조직개편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19명과 과장급 55명 등 총 74명 규모의 이번 인사는, 민선 7기 들어 인사혁신이 모든 혁신의 기본이라고 판단한 권영진 시장의 주문으로 마련된 ‘대구형 新 인사혁신 프로젝트’의 철학을 기준으로 한 첫 간부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감인사를 골자로 한 ‘대구형 新 인사혁신 프로젝트’에 담긴 제도적 장치 중에서 특히 다면평가를 이번 간부인사에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권 시장은 여성공직자를 과감히 발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간부인사에 6명(3급 2명, 4급 4명)의 여성 공직자들이 대거 새로이 기용됐다.

이번 여성 간부 인사를 보면, 3년 6개월간 ‘일·가정 양립 정책’을 선도하며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온 하영숙(7급특채, 56세) 여성가족정책관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신선되는 여성가족청소년국장(개발형직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9급공채, 56세)을 임용했다.

이 밖에도 국립청소년상담센터 유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조윤자(9급공채, 54세) 청소년보호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고, 축제진흥팀장·시민협력팀장·인재양성팀장을 거쳐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이은아(9급공채, 51세) 인재양성팀장을 청사이전추진단장(직대)으로, 시민소통과장(직대)에는 장애인 자립지원 협의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장영미(9급공채, 56세) 장애인정책팀장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업무에 열의를 다해 온 허규향(9급공채, 57세) 보육팀장을 여성회관장(직대)으로 각각 발탁 보임했다.

이처럼 이번 인사에 국장급 승진자 중 여성이 2명 포함되면서 지역 여성국장급 간부공무원은 대구시 개정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인 총 5명이 됐으며, 행정4급 승진(직대 포함) 대상자 중 여성공직자 비율도 24%에 달했다.

최초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경북도와 국·과장급 교환근무도 시행된다.

초대 국장급 교환 근무대상자로 대구시는 한만수(9급공채, 56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경북도는 김호섭(지교2기, 49세) 부이사관을 상호 파견해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임용하고 과장급으로는 김상희(9급공채, 57세) 자치행정과장과 경북도의 전영하(9급공채, 58세)과장을 교환해 각각 사회정책과과장에 임용한다. 김충희 기자

□대구시(2019. 1. 1.자)

○3급 (전보)△경제국장 홍석준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교육) 김창열 · 남희철 △녹색환경국장 성용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승진)△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교육) 하영숙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관 신대균 (전입)△상수도사업본부장 김부설 (개발형직위)△여성가족청소년국장 강명숙 (직무대리)△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성 △건설본부장 심재균 △도시재정조국장 권오환 (파견)△경북대 강정문 △계명대 최영호 △경북도 한만수

○4급 (승진)△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박경수 △경제국 산단진흥과장 김광목 △혁신성장국 혁신성장정책과 소부영 △교통국 버스운영과장 김선옥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교육) 윤희광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 제갈진수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장 하종선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장 손봉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조대호 △도시공원 관리사무소장 정진우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장 이소화 △도시재정조국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 △북구 도시국장 배기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김진돈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교육) 최현숙 △기획조정실 지역혁신담당관 권상욱 △경제국 민생경제과장 이우실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교육) 조윤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창열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한갑수 (개발형 직위)△

도시재정조국 도시디자인과장 이준택 (직무대리)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장 박병길 △시민행복교육국 시민소통과장 장영미 △자치행정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은아 △여성가족청소년국 청소년과장 김진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이상민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이길수 △여성회관장 허규향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장 강호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김배로 △도시재정조국 토지정보과장 백선기 (전보)△대변인 김형동 △기획조정실 데이터통계담당관 배춘식 △교통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과장 신정섭 △시민행복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최이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철복 △자치행정국 인사혁신과(교육) 김용우·(교육) 이은미 △자치행정국 신기술사업과장 조동구 △북구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정한호 △여성가족청소년국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충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박희준 △녹색환경국 수질개선과장 김동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광영구 △공무원교육원장 윤진원 △중랑북치화관장 김응일 △팔공산자연공원 관리사무소장 정성복 △녹색환경국 기후대기과장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 생산수질과장 박노을 △시민행복교육국 사회적경제과장 전영희 △시민안전실 하천과장 박용욱 (전입)△여성가족청소년국 출신 보육과장 박재홍 (전출)△남구 김영기 △달성군 진용환 △중구 서오섭 △남구 송창섭 (파견)△경북도 최상희

대구시, 문체부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2020년부터 5년간
사업비 200억 투입

대구시가 내년도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의미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포함 총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문체부는 지난 8월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접수받아 현장실사, 최종발표회 등의 절차를 거

쳐 18개 자치단체 중 대구시를 포함한 10개 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 의결했다.

시는 지난 2014년 문체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돼 공민문화도시사업을 4년차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내년도 예비사업을 추진해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문화도시 승인을 받았다”며 “구군과의 협업을 통해 내년도 연말에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충희 기자

오늘 물산업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연다

아카데미 활동 우수사례 발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는 2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지난 7개월간 진행된 물산업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아카데미 참여 시민, 학생 등 1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물산업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 2부로 나뉘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물산업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부 행사에서는 아카데미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올해로 2년째 맞이하는 물산업 아카데미는 △물산업 시민강좌 △물산업 서포터즈 △청

소년 물 토크 콘서트 △찾아가는 물산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시민 및 학생 1400여명이 참여한다. 물산업 시민강좌는 대구 하천에 얽힌 이야기 강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참가, 물산업클러스터 견학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물산업 서포터즈는 물산업의 이야기를 SNS를 통해 소개하고 환경행사 참여와 시민인식 조사활동을 펼쳤다.

청소년 물 토크 콘서트는 지난 9월에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기간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개최돼 전문가와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물이라는 이슈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충희 기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68억 투입

신북방·신남방 정책 연계한
신흥시장 개척 수출확장 올인
올해 예산 54억 대비 26% 증액
전략적 맞춤 지원 목표 수출
430억불, 무역흑자 280억불



경북도는 '2019 중소기업 통상확대 수출마케팅전략'을 발표했다.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내년도 수출지원 예산으로 올해 54억원 대비 26% 증가한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출 430억불, 무역흑자 280억불을 목표로 정하고 전략적·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중국과 북미 12개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LA 한국우수상품전 및 상하이, 광저우, 홍콩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명 국제전시회에 참가한다.

또 도내 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의 수출증대를 위해 미국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인 H-마트 입점·판매와 함께 지난 11월 경북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난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부지역 유통망 진출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 진출에도 가속도를 낸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지난 11월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연해주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러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러시아와 CIS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북방시장 통상프런티어 사업을 전개하고 연해주 등을 중심으로 경북도의 온-오프라인 상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아세안과 인도 수출길도 확대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VIP 국가와 인도의 경제한류를 활용해 경북우수상품전을 열고 현지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도내 중소기업 판매채널 확대에 나선다.

한편 동남아 쿠펰, 말레이시아 라자다 등 인터넷쇼핑몰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북도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끌어올리고 내수 및 수출 조보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입체적으로 펼친다.

수출경험이 부족한 도내기업 대상 해외시장조사, 무역실무교육, 통번역, 해외인증 등과 함께 수출상품 기획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도와주는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등 28개 관련사업을 지원하고 경북도수출기업협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회원기업 350개 기업을 내년에는 500개 기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지역의 KOTRA지역본부, (재)경북도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무역관련 기관과 각종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대기업의 국내의 이전 등 쉽지 않은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꾸준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경북도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13년 총수출의 21%(총수출 538억불, 중소기업 114억불)에서 올해에는 총수출의 29%(총수출 410억불, 중소기업 120억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북도의 수출지원예산 확대로 해외지사화, 수출보험, 개별전시 참가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지원이 올해 900여개 기업에서 내년에는 1,100여개 기업으로 확대되는 한편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사업도 380여개 기업에서 440여개 기업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내년도 무역환경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업체와 수출 유관기관, 경북도가 힘을 합쳐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증대는 곧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인 만큼 수출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동해바다 수산자원 우리가 지킨다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 창립총회

동해바다의 수산자원의 회복
효율적인 관리 정책방향 제시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 창립총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경북 동해권역 어업인 대표 단체인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 창립총회는 26일 포항 라메르컨벤션 르네상스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시장·군수, 도의원, 어업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동해바다발전정책포럼은 '동해바다 수산자원 우리가 지킨다'를 기치로 내걸고 경북 어업인들의 타전인 동해바다의 수산자원 회복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산업 각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견 교환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발기인 대회 개최에 이어 정관, 조직 구성,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했으며 초대 포럼공동대표에는 김성호 전(前)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연합회장(이하 한수연)과 허오룡 한수연 경북연합회장, 연규식 전(前)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장이 선출됐으며 당면적 자문위원에는 도내 9개 수협조합장, 특별자문위원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등 13명이 추대됐다.

김성호 포럼공동대표는 "바다의 수산자원은 무한한 것 같지만 너무 많이 잡으면 고갈되게 돼 있어 수산자원과 우리 동해바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북 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우리 동해바다를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북 수산업의 가치회복과 부흥을 위해 포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용 기자

경북도, 자체감사활동 '포항시·영덕군' 최우수

계약원가심사 '영천시·의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농촌개발과'
상주소방서, 우수 직속기관

경북도는 도내 시군의 자체감사활동과 계약원가심사, 도 소관 부서의 자율적 내부통제 등 3개 분야 14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상했다.

경북도는 도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소관 부서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활동평가를 실시했다.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시군의 자체감사활동

을 평가해 행정의 질적 개선과 발전 유도, 나아가 수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24개 평가자료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포항시와 영덕군이 시군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는 시군을 대상으로 계약절차 진행 이전에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재정누수 사전 차단, 재정절감효과 거양에 대해 평가했으며 영천시와 의성군이 최우수 기관상을 받았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평가는 공직내부 비리 사전예방, 행정오류 상시모니터링 등을 평가해 본청 농촌개발과가 최우수 부서, 상주소방서가 우수 직속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강동진 기자



경북도, 청년 디자인 특공대 결실

26일부터 3일간 도청 동라관
특독 창의 제품 42점 한자리에

경북도는 26일 도청 동라관 1층 전시실에서 청년디자인특공대, 자문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디자인지원 사업 추진 성과물'에 대한 제품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오는 28일까지 3일간 제품을 전시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디자인산업 제품 전시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청년디자인4.0 특공대, 아시아크리디자인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경북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작품은 청년디자인특공대의 치매교육키트 등 12점, 아시아크리디자인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의 어린이미용가운 등 20점,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브랜드개발 10점 등 전체 42점이 전시된다.

특히, 청년디자인 특공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결합된 제품들은 마을과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한 학생36명(졸업생 11명) 중 5명이 취업의 꿈을 이뤘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이 접목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 전공 청년들의 체험활동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포항시, 문화도시에 선정... 국비 100억원 확보

2020년부터 5년간 200억원

경북도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도시 계획승인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돼 문화도시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19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실적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받는다.

지정받은 지자체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규모의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포항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5년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문화도시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조성', 구룡포 문화예술거리 조성, 호미곶 해양문화촌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인적·물적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강동진 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생활 속 물절약,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뭄 해결, 생활 속 물절약부터!

- 욕실에서**
 - 양치 컵 사용하기
 - 샤워시간은 반으로
- 빨래할 때**
 - 빨랫감은 모아서 한 번에
 - 수위는 적당히 조절하기
- 주방에서**
 -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 수도꼭지에 물 조리게 부착
- 일상생활에서**
 - 새는 수도꼭지는 바로 수리
 - 쓰지 않는 수도꼭지 잠그기

검찰, 청와대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창성동 별관 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2016년 우병우 수사 이어 두번째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오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감반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있지 않고 약 300m 떨어진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 검찰이 이날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까지 압수수색한 것인지, 창성동 특감반 사무실만 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임 비서실장의 경우 우윤근 주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 혐의를 보고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했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 파악, 공황철도 등 민간기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송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 고발이 있던 20일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토록 지시했다.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기관으로 과거 사직동첩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감반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감찰반장은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가 담당한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차원에서 2016년 11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감반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대상 범위와 압수수색 영장 제출 형태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뉴스스

홍준표 싱크탱크 26일 출범...“현역 의원은 배제”

류석춘·한상대·고영주 등 보수 인사 대거 참여 눈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쪽 싱크탱크인 프리덤코리아포럼을 26일 공식 창립하고 외연 확장에 나선다.

홍 전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프리덤코리아포럼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언론 및 각종 기관 및 단체 대표 등 각계의 보수 성향 인사 5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은 없다.

“자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를 표방한 프리덤코리아포럼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홍준표 체제에서 활동했던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발기인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종북좌익 세력 척결을 지시하고 후배 검사들의 항명인 ‘검란(檢亂)’ 파동으로 퇴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앞 야구방망이 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청년연합회장도 참여한다.

이밖에 한국당 통일외교특보 출신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 전 대표의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 남정욱 대한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영작 여론조사 전문가(전 미국국립보건원 의료통계분석실장), 이우성 영화감독 등도 발기인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범한 이번 포럼을 두고 원내 지지기반이 약



한 홍 전 대표가 보수 세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한편, 각계 전문가 등을 대거 참여시켜 ‘반문(反文·반문재인)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프리덤코리아는 홍준표의 개인 조직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잇는 한국 보수우파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프리덤코리아가 좌파정권을 끝내고 이땅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꽃피울 주체세력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포럼의 역할에 대해선 “앞으로 전문가 그룹들이 여의도 정치인들과는 무관하게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활동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선 “내일 발족할 내이션 리빙딩 프리덤코리아는 애초부터 기존 정치인들인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은 배제하고 출발한다”며 “홍준표는 원오브템에 불과하다. 마크롱은 의원 한명 없어도 집권했다”고 반박했다.

뉴스스

한국당 “당협 25개 지역 추가 공모”

10개 안팎 지역 공개 오디션 진행 1월 15일 마무리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8일부터 31일까지 25개 지역에 대한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이 응모해줬지만, 해당 지역 특성과 경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강특위에 따르면 추가 공모 지역은 △서울 6곳(용산구·광진구·중랑구·노원구·구로구·강남) △부산 4곳(진구·남구·사하구·금정구) △대구 2곳(동구·수성구) △인천 3곳(미추홀구·계양구·계양) △경기 5곳(수원·의정부·평택·시흥·용인) △충남 3곳(아산·논산·계룡) △충청 1곳(서귀포시) 등이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 18~20일 교체 대상으로 지명된 79곳에 대해 당협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총 246명이 지원, 경쟁률은 3.1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일부 지역은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미 응모하신 분들도 훌륭하지

만 지역 특성, 경쟁상태 비중, 더 많은 선수를 모아서 비교하는 게 더 신중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에서도 당협위원장 되실 분이 당에 기여를 해주실 분들에 대해서 영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혹시 중앙당에서 명단을 넘겨줄 분들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은 추가 공모 접수 이후 내년 1월 1~6일까지 5일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안팎 지역에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강특위는 이들 절차를 포함해 추천자 선정을 1월15일 전후로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추미애·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유력 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상대방이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오 전 시장이 나오면 좋다”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의 선택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과 대적할만한 경쟁력 있다는 분들이 공모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비우고 갈 수밖에 없다”라며 “한국당이 점점 지지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경우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로 미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南北 열차 타고 판문역 집결...철도·도로 착공식



남북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는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출발, 판문역에 도착하는 열차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플랫폼에서 개성 판문역 행 특별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이산가족 “실향민들도 기차 타고 고향 갈 수 있다면”

남북 철도가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만났다. 남북의 정부 당국자와 철도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수 의지를 확인하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6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특별열차 출발에 앞서 조 장관과 국회의원 등은 서울역 3층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남북 경협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가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남북 화물열차를 운행했던 신장철 제진역 명예역장은 열차에서 취재진에게 “갑개무량하다. 퇴직하고서 또 언제 가볼까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86·여)씨는 “고향 땅에 간다는 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기쁨이랄까 몰라요”라며 “젊은 분들 왜 저렇게 고향을 갈망할까 하지만, 어렸을 때 지낸 곳이니 옛 추억이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실향민들 많은데, 그분들도 기차 타고 당신들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나이가 많잖아. 기차타고 가보는 게 큰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제가 2002년 9월18일 북한에 철도 자재와 장비를 주는 착공식을 했고, (이재정 전 장관이) 2007년 5월17일 시범 운행 경의선, 동해선 착공식을 했다. 그때도 남북이 100명씩 (참석했다)”이라고 말했다.

옆에 앉아 있던 이 전 장관은 “11년 전 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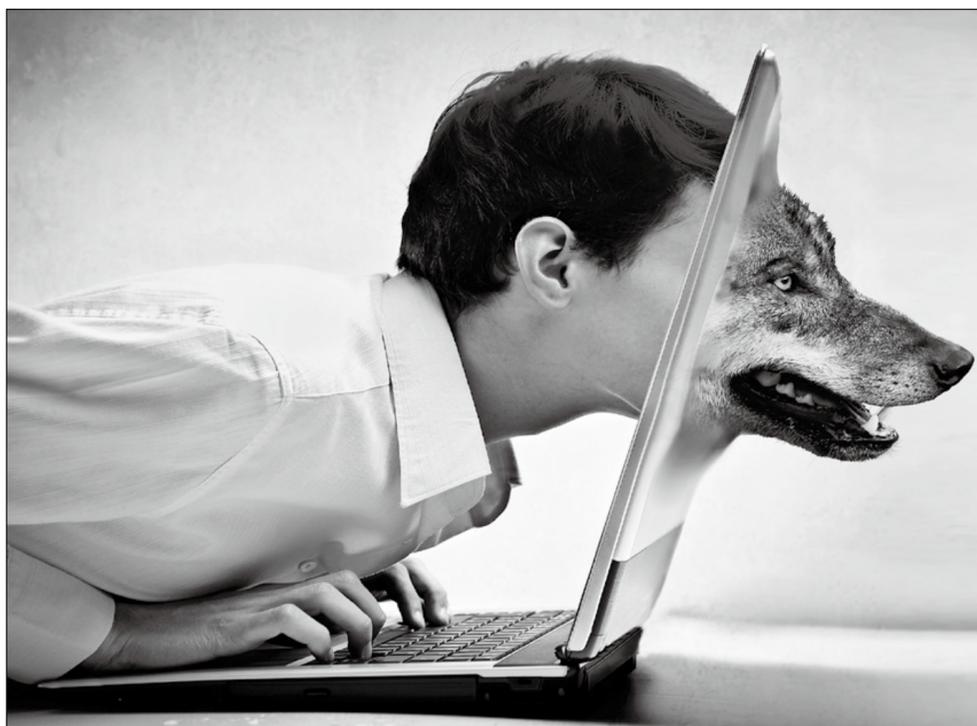
역을 통해 개성에 화물열차가 가고, 원자재가 건너가고, 개성이 열리게 된 거다”라며 “철도가 신의주 현지 조사까지 끝냈는데, 이걸 11년 전보다 진일보된 거다. 이것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8시에 남측 도라산역에 도착해 출결심사를 받고 북측 판문역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8시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고, 오전 9시에 개성 판문역에 도착했다.

착공식에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대사를 비롯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인사들과 아르미다 알리사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사무총장 등 외국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구시민 희망전진대회·대구시민대학 축제 한마당

30일 경산실내체육관서 개최

2018년을 하루 남겨둔 오는 30일 오후2시, '2018대구시민 희망전진대회'가 경산실내체육관에서 7000여명의 대구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그동안 대구지역 실버대학들의 연합체를 만들어 시니어 세대의 역동적인 삶을 지원해 온 대구시민대학총연합회와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정회복운동에 주력해 온 대구시 참가정실천운동본부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대구시지부와 함께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7개 국

가(일본·태국·필리핀·중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세터민)의 다문화가정 자녀 7명에게 교육감 표창장을 전달하고, 이기성 참가정실천운동본부 한국회장이 10개의 실버대학 모범가정 10명에게 '효정부모상'을 시상한다.

사회는 변사훈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대구시지부장이, 축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김규환 국회의원·효광 동화사 주지스님이, 특강은 설용수 박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상임고문)가 맡는다.

2018년 송년축제의 의미를 담아 100명의 '대경호모니카아카데미'들의 연주와 실버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한 아마추어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특별초대가수로 조항조가 참석자들의 흥을 북돋을 예정이다. 최경수 기자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1월 28~11월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누리집에서 신청 받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까지 신청하기 권장한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

계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سو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 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최경수 기자

경북닥터헬기 2천번째 임무 수행

의사가 탑승해 응급 이송 중 약물투여 등 전문치료 가능 중증환자 치료에 큰 도움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도입한 경북닥터헬기가 출범 2002일째인 26일 2000번째 임무를 완료했다.

안동병원에 따르면 국내 6대의 닥터헬기 가운데 가장 먼저 2000회 임무를 달성한 경북닥터헬기는 지난 5년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1회 경북하늘을 날며 응급환자의 이송과 치료임무를 수행했다.

이 기간 중 경북닥터헬기는 2572회 요청을 받아 2000회 출동, 572건은 기각했다. 출동한 2000회 중 1863회 임무를 성공했다.

137회는 운항 도중 갑작스런 기상변화 및 요청환자 상태변화 등으로 임무를 중단했다.

기각사유는 기상여건이 65%로 가장 많았다. 임무수행 중 중복요청 21%, 의학적으로 9% 순이다.

경북닥터헬기가 이송한 환자 1869명 중 중증외상 환자가 579명(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질환 405명(21.7%), 심장질환 264명(14.1%), 호흡기관, 임산부 등 기타환자가 621명(33.2%)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영주 458건(24.6%), 봉화 234건(12.6%), 청송 187건(10%), 의성 183건(9.8%), 영양 179건(9.6%), 울진 175건(9.4%), 문경 173건(9.3%), 예천 152건(8.2%), 상주 39건(2.1), 군위 36건(1.9%) 순이다.

헬기이송 시간은 평균 17분 44초가 소요됐

다. 예천, 의성, 영주지역은 12분 이내, 청송, 영양, 봉화, 군위지역은 15분 이내, 문경, 상주, 영덕은 18분, 울진은 평균 25분40초 소요됐다.

환자의 성별은 남자가 1204명(64.6%)으로 여자환자 665명(35.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가 503명(26.9%), 60대 374명(20%), 50대 341명(18.3%), 40대 이하는 270명(14.5%)이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현장으로 날아가며 약물투여 등 전문처치가 가능해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린다.

김연우 안동병원 항공의료팀 센터장은 "닥터헬기는 헬기에서 병원과 교신을 통해 병원 도착 전 최적의 검사 및 치료를 준비할 수 있어 분초를 다투는 중증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이 닥터헬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대구·경주서 교통사고 잇따라...1명 숨져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부근 트럭 전복 옆 차로 승용차 덮쳐 경주 31번 국도 봉길터널에서 승용차와 트럭 충돌 1명 숨져

■경부고속도로서 트럭 전복 승용차 덮쳐...3명 부상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면서 승용차를



26일 경주 봉길터널 안 교통사고 모습

덮쳐 3명이 다쳤다. 26일 오전 6시쯤 대구 북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부근 서을 방면 134km 지점에서 컨테이너 트럭이 넘어지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수습 때문에 북대구IC 인근 도로가 봉쇄돼 정체가 극심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주 31번 국도 봉길터널서 교통사고... 1명 숨져

26일 오후 3시 20분께 경주시 양남면 봉길터널을 통과하던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3명은 경주 동국대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 1차선인 국도 31번 '봉길터널'은 경주 양북면 중저준위방폐장과 양남면 월성원자력 발전소를 연결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용찬 기자

가출 후 택시강도 10대 '징역'

법원, 장기 3년 단기 2년 선고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도 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서울에 있는 집에서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9월 10일 오전 3시 36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도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에서 음식값을 내는 문제로 다투던 지인 C(21)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김대훈 기자

구미경찰, 현일중·고교 압수수색

시험지 유출 경위 조사

구미경찰서는 26일 같은 재단의 중학교 교장 아들에게 학력경시대회 시험을 미리 보게 해 물의를 빚은 구미 현일중·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중·고 교장과 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시험지 사전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일고는 2014년부터 해마다 '수학·영어 학력경시대회'를 열고 있다.

입상자에게 상금과 해외문화탐방 참가, 특설반 입실(본교 입학 경우)의 특권을 주고

있다. 매년 구미를 비롯한 경북 도내에서 수백명의 학생이 응시할 정도다.

하지만 이 학교는 올해 경시대회를 나흘 앞둔 지난 10월 23일 4교시와 점심시간에 같은 재단 현일중학교 교장의 중3 아들에게 미리 시험 기회를 줬 물의를 빚었다.

승마 특기생인 중3 아들은 승마대회 참가 때문에 경시대회에 응시할 수 없어 혼자 시험을 보도록 한 것이라고 학교 측은 해명했다.

경북교육청은 사전 시험이 특혜를 주려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은진 기자

안전 점검 마친 BMW 차량...주행 중 연기 치솟아

안전점검을 마친 BMW 5GT 차량에서 연기가 치솟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시께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서포항IC 인근에서 A(45)씨가 몰던 BMW 5GT 차량에서 연기가 났다.

다행히 연기는 점차 잦아들어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2015년에 구매한 차량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돼 지난달 안전 점검까지 받았다"면서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속도가 되려 줄었고 백미러로 연기가 보였다"고 했다. 강동진 기자

문화융성
관광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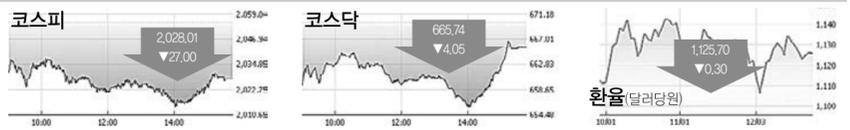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인문진흥재단

대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불법도박은 이용자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산업, '평택 석적공원' 협상자 선정

조경사업부문 최고 기술력 인정받아

화성산업은 지난달 평택에서 실시한 '석적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참여해 도시공원시설부지를 개발하고 70% 이상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협상자로 선정된 평택 석적근린공원은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될 상황에서 이번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했다. 석적근린공원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 92-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에서 제안한 계획은 총 면적 25만1833㎡중 22%인 5만5403㎡에 공동주택 약 1400여세대를 건립하고 78%인 19만6430㎡ 면적에 공원과 키즈 사이언스 센터, 야외음악당,스카이워크 등 시설을 2022년까지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또한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합친 전체 사업은 오는 2023년에 완료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은 이번에 평택 석적근린공원 민간공원개발 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활발한 역의사업과 공원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확장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경사업부문의 오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증받게 됐다. 화성산업은 인간과 자연, 도시와 환경,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의 가치를 추구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공원조성, 생태환경복원사업 등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서울시 4대공원중 북서울 꿈의 숲(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과 월드컵 평화의 공원(서울특별시 조경상)을 조성했고, 부천 상동 시민의 강(환경부 생태조경녹화대상), 부산시민공원(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최우수상,조경문화대상 국토부장관상), 여의도 셋갈 생태공원,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조경공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공원사업을 건설해 왔다. 60년 건설역사와 함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은 대한민국 공원부문에서 단순한 공원조성이 아니라 공원문화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수 기자

대구·경북 지역민과 함께한 우체국



경북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원들이 애성보육원(대구 동구 검사동)에서 따뜻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 다섯 번째 흥진배 경북지방우정청장)

경북우정청,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 곳곳에 전한 따뜻한 희망 복지사각지대 의료비·주거비 등 연간 5억3천여만원 지원

경북지방우정청은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 마음을 이어주는 든든한 이웃이 되고자 홀몸어르신 명절선물 증정, 방학교실 저소득가정 결식아동 지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지원, 보육원 아동 문화활동 지원,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지원 등 연간 5억3000여만원 상당의 재원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우체국 단위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우체국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집배원 365봉사단 13개와 우체국행복나눔봉사단 34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봉사단에서는 무료급식, 집수리, 난방유 지원, 연탄배달, 김장나눔, 명절선물 증정, 밀반찬 배달, 생필품 및 생계비 지원 등 연간 2억3100여만원 규모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 4200여명의 직원들이 매일 급여에서 연간 50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소년소녀가장 16명에게 생활비

를 지원하는 '다사랑 운동'과 올해 9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정기적으로 드리고자 대구MBC 라디오(프로그램명: 서상국·이지아의 특급작전)와 함께 매월 1명에게 성금 1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

우체국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집배원, 보험관리사(FC)를 통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구, 긴급 구호가 필요한 주민 등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 지원대상자 상황을 고려해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지원활동을 연간 1억4100여만원 규모로 진행했다.

■우체국 작은대학 운영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주안강우체국에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안동, 영주, 문경 등 총 11개 지역 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작은대학'은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컴퓨터 기초, 색연필화, 문맹자 한글교육, 원예치료 등의 교육을 재능기부로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설치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대구·경북지역 우체국과 협약을 맺은 3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720여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소원우체통'을 설치·운영해 아동들이 받고 싶어하는 물품(장난감, 학용품 등)이나 놀이기구 체임, 영화관람 등을 편지로 받은 후 지원대상 아동을 선정해 각 지역 우체국행복나눔봉사단이 방문해 소원을 들어주는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선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위한 '만원의 행복보함' 무료가입 활동 전개

우체국과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 단체가 재원을 마련해 올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00여명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시 유족보상과 실손의료비를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보함'을 무료로 가입해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흥진배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과 연계한 공익사업을 발굴·육성해 수혜자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의 사회공헌 인프라를 공유하고 우체국에 특화된 활동을 적극 이행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남산자이하늘채' 내일 견본주택 공개

GS건설·코오롱글로벌 시공 1368세대 중구 최대규모 단지 초역세권 입지, 도보 통학권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8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2951-1번지 일대에서 들어서는 '남산자이하늘채'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구 중구 남산동은 올 한해 전국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1위와 3위 단지가 분양했던 곳이다. 남산자이하늘채는 남산 재개발구역 단지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와 뛰어난 입지 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올해를 마무리하는 분양으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총 12개동, 1368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이 중 96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임대료 공급되는 전용면적 39.48㎡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평면을 위주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390가구 △74㎡ 101가구 △84㎡ 319가구 △84㎡ 155가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뛰어난 교통 환경과 교육 환경, 생활 환경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입지를 선보인다. 단지 바로 앞으로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곡개역이 위치해있어 도보권의 초역세권 단지로 들어선다. 여기에 달구벌대로를 비롯해 대구 주요지역을 오가는 버스노선도 다양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학부모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도보 거리에 내당초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자랑한다. 이밖에 도계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경북여고, 대구교대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뛰어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미 주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원도심의 생활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홀플러스 내담점이 도보 10분, 차량으로 3분 내 접근이 가능하고, 대구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도 단지에 인접해 있다. 대구 최대변화가인 동성로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로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생활환경도 뛰어나다. 여기에,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남산동 일대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선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 할 예정으로, 대구 대표 주거단지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단지는 뛰어난 평면 설계를 갖춘다. 대부분의 세대에 3, 4베이(Bay)의 판상형구조와 맞물림이 가능한 설계를 적용한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 관리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 주요 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면 위주의 구성을 갖췄고, 펜트리와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현관 수납장 등 각 평면 별로 다양한 특화 공간도 선보여 보다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한 설계를 적용했다. 또 중구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답게 조경과 외경에도 신경 썼다. 단지 내부에 중심 커뮤니티 공간이자 정원인 엘리시안가든을 비롯, 생태연못, 힐링가든, 리빙가든 등 다양한 조경특화 공원을 설치한다. 여기에 랜드마크 단지 답게 역동적 느낌의 입면디자인을 적용해 단지 외관에도 신경 썼고, 입면분할창(주동 전면부)을 적용해 각 세대에 뛰어난 개방감을 제공하고 단지 전체에는 미려한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단지답게 커뮤니티시설도 알차다. 단지 중심부에 위치하는 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실내용프린팅장, GX룸을 설치할 계획이다. 운동 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 시설도 설치된다. 이밖에 자녀들의 학습환경을 위한 작은도서관, 독서실도 들어서고 어린이집, 경로당,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풍성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첨단의 시대에 맞춘 특화기술도 적용된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홈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가스밸브 차단, 조명제어, 난방제어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주차장도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일반 주차장보다 넓게 주차공간을 배치해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남산자이하늘채는 최강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남산동이 위치한 중구의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현재 대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소유권 등기가 이전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낮은 상황이다. 남산자이하늘채는 분양권 당첨 이후 전매를 원하는 당첨자를 위해 안심전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 2차 계약금을 납부한 세대로부터 1차 중도금 납부 이전에 전매가 가능해 중도금 대출 걱정 없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속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분양에 나서 예비 입주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35-4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상반기 예정이다.(문의번호 1661-5523) 최경수 기자

대구지역 롯데백화점 기해년 새해 첫 정기세일

1월 2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한 사은행사 진행



대구지역 롯데백화점은 2019년 황금 돼지띠 시작과 함께 1월 2-20일까지 새해 첫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총 5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새해를 맞아 럭키스페셜기프트, 트레이디셔널 시즌오프, 신년 축하상품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특히 포근한 겨울 날씨에 판매가 추웠던 롱패딩, 모피, 점퍼 등 방한류 할인율을 예년보다 20%이상 높였다. 이번 새해 첫 정기세일은 아웃도어, 남성·여성, 주방용품 등 모든 장르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선보인다. 먼저 대구점은 2-6일까지 지하 2층 점 행사장에서 유명 남성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하는 '방한의류 대전'을 진행하고, 인기 점퍼, 다운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또한 7-13일까지 9층 점 행사장에서는 우단, 국제모피가 참여하는 '모피 실속 상품전'을 진행한다. 약 10억 상당의 물량을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상인점은 2-6일까지 지하 1층 점 행사장에서 폴퍼 등 영패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하는 '영패션아우터 대전'과 '아웃도어·골프웨어 특가상품전'을 선보여 다운점퍼, 니트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또한 세일 기간동안 상인

점6층 주방용품 브랜드 '보니타하우스'에서는 접시 등을 최대 65%, '실리트'와 'WMF'에서는 런칭 28주년을 기념해 후라이팬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외에도 3-13일까지 각 층 본매장에서 진행되는 '럭키스페셜기프트' 행사에서는 삼겹살, 극세사 이불, 장갑, 머플러 등을 최대 70%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럭키스페셜기프트' 행사는 단 하루씩 행운의 선물을 드리는 새해 이벤트로 행사기간동안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며 참여브랜드와 품목은 일차별로변경된다. 롯데백화점은 첫 세일을 맞아 사은 프로모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2-6일까지 화장품 브랜드에서 당일 20만원 이상 구매 시 5%상당 롯데상품권을, 같은 기간 동안 주방·식기·홈텍스 브랜드에서 당일 20만원 이상 구매 시 (참여브랜드 한함) 10%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최경수 기자

대구특구본부, 첨단기술기업 예스바이오테크에 현판 전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날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에스바이오테크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에스바이오테크는 생체 분해성·골형성

유용 임플란트 금속, 소재 기술 전문기업으로써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에 10%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2018년 매출 4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재산세 7년간 최대 100%, 3년간 50% 감면을 받으며 또한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김충희 기자

농협중앙회 인사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2019. 1. 1.자)
△부분부장 손진혁 △경주시지부장 전인식 △고령군지부장 윤상갑 △김천시지부장 서동환 △봉화군지부장 이인 △상주시지부장 최석기 △성주군지부장 이영환 △안동시지부장 김철 △영양군지부장 김형준 △영주시지부장 배준호 △예천군지부장 서영진 △울릉군지부장 최진수 △울진군지부장 김경열 △청송군지부장 이재호 △칠곡군지부장 권태환 △포항시지부장 김춘안 △경영기획담당 박기화 △농촌지원담당 박성철 △구미시 농정지원담당 안재근 △군위군 농정지원담당 이기봉 △문경시 농정지원담당 황정섭 △성주군 농정지원담당 박무현 △예천군 농정지원담당 이철수 △울진군 농정지원담당 황도연 △의성군 농정지원담당 유해식 △청송군 농정지원담당 김명숙 △칠곡군 농정지원담당 손영민 △청도군 농정지원담당 김형년 △포항시 농정지원담당 최효철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원예유통사업담당 김태환 △시장개척담당 장현석 △경영기획담당 장호진 △경산시연협사업담당 팀장 김진원 △영덕군연합사업담당 팀장 이상석
□NH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
△경영지원담당 송강호 △스카팀추진담당 김정수 △현장지원담당 이현규 △여인관리담당 현덕규
□지점장
△중방동 윤석우 △경산백자로 최현숙 △경산공단 송재석 △인강 박경호 △동천 최현철 △한국수력원자력 장민상 △구미홍유진 △구미강동 김인재 △구미남동 정연찬 △구미중앙 김만규 △동구미 이기욱 △김천드림밸리 김주원 △동김천 배현용 △상주북 권혁중 △함창 오세현 △풍기 전이향 △영천중앙 서정우 △상대동 여한기 △포항양덕 김용환 △포항대신 김영화 △해도 김철호 △포항여인관리단 김용택 △경북대(김성) 이도화

울릉일주도로 미 개통구간 55년만에 뚫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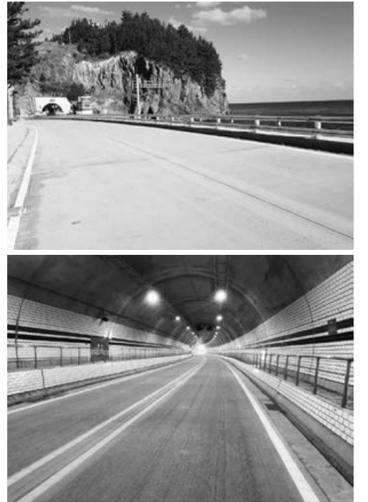


해안절벽 미 개통구간 4.75km 터널, 교량 등으로 연결 통행 소요시간 1시간 이상 단축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 기대

울릉도 일주도로 전 구간(44.55km)이 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지 55년만인 오는 28일 완전개통된다. 울릉도 일주도로는 1963년 3월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의 하나로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1976년 8월 39.5km 구간 차도개설 공사가 시작돼 1979년 8월 울릉군 울릉읍 동동리와 저동리 간 2.3km 구간에 첫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그 후 1995년 11월 지방도 926호선으로 지정됐고 2001년까지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 구간 4.75km를 제외한 전체 39.8km 구간이 개통됐다.

미개통 4.75km 구간은 해안절벽으로 이뤄져 난공사 구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업비 부담으로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경북도의 끈질긴 건의로 2008년 11월 이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1264억원을 지원받아 공사가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도로계획 확정 후 55년만에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 것이다. 울릉읍 저동리와 북면 천부리를 잇는 4.75km 구간의 미개통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는 7년간(2011~2018) 총 1387억원(국비 1264억, 도비 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주요 시설물로는 터널 3개(3559m, 내수전 1527m, 와달리 1955m, 섬목 77m), 교량 1개(32m), 터널통합관리사무소 1개 등이 있으며 도로 폭은 8m(2차로)로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경북도는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과 함께 기

존 일주도로 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 도로가 좁고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낙석, 산사태, 너울성파도, 겨울철 상습결빙 등)로 차량통행과 주민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경북도는 5년간(2015~2020년) 총사업비 1482억원을 투입해 터널 5개, 피암터널(낙석 방지를 위해 터널 형식으로 만든 구조물) 4개, 교량 5개, 해안도로 확장 등 기존 울릉도 일주도로 21.1km 개량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울릉도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울릉군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울릉읍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간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이 1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 악화에 수시로 고립되던 불편이 해소되는 동시에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호미곶해맞이, 70주년 잔치 더욱 성대하게

21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시 승격 70주년에 맞춰 영일대·호미곶 최초 영상중계 희망플래시몹 등 콘텐츠 다양



포항시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을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제20회 행사 장면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제 21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시승격 70주년의 첫 잔치의 의미를 더하고자 시민 전

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매년 관람객의 80%가 외지인이다. 포항시민들은 가고 싶지만 해맞이 후 교통 체증 등의 문제로 영일대와 환호공원 등 가까운 장소로 찾고 있다. 이에 포항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영일대해수욕장 광장에 200인치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고 호미곶 현장을 생중계해 시민들에게 호미곶의 감동을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새해와 함께 진행될 플래시몹 퍼포먼스는 포항의 10대부터 70대까지 70명과 관광객들이 함께 해 ‘아리랑’과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 나라사랑과 독도수호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는 독도에서 가장 근접한 포항에서 독도사랑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했다. 또한 포항의 유일한 현채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포항문화재단의 문화도시TF팀과 예비사회적기업 ‘쉐어라이프’가 함께 뉴

트로 프로젝트 ‘발전! 오래된 보물섬’을 진행 한다. 이외에도 축제장 내 추위방지텐트 ‘호·호텐트’ 내 인조잔디를 4m에서 8m로 2배 늘려 보온성을 강화했으며 SKT와 KT에서 축제 방문객들을 위한 휴대용 무료 충전소 운영, 대구 은행, 농협, 적십자회 등의 어묵 무료 나눔 등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문화재단 조현국 상임이사는 “이번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잔치로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물론 시스템 등을 지난 축제 대비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포항을 찾는 해맞이 관광객들과 포항시민이 포항의 우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 21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이외에도 새천년기념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마당놀이 ‘호미곶 흥녀 심청전’과 ‘장현거리노래방 호미곶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1만명 북망이 감사 떡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진 기자

경주 장군교, 신라 역사 테마 벽화로 새단장 눈길

교각 하부 화려한 테마 벽화로 변모



경주 시가지 방면에서 형산강을 건너 김유신 장군묘와 송화산을 이어주는 서천 장군교 교각이 신라 역사테마가 있는 화려한 벽화로 새단장에 눈길을 끌고 있다.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명으로도 유명한 장군교는 예전엔 다리가 아닌 철교였으나 오래 전 철도가 없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보로 형산강을 건너 김유신 장군묘와 송화산 등반과 산책을 위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곳 장군교 아래로는 형산강과 인접한 서천 둔치에 자전거, 인라인, 조깅과 산책 등 트레킹 코스가 잘 갖춰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교량 하부가 퇴색되면서 서천변의 쾌적한 분위기를 살리지 못해 도시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하천과 인접한 교각 3면에는 형산강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왜가리, 황포돛대, 폭포 벽화를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산책

로가 접한 둔치의 교각 6면은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 기록과 화랑의 모습을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에 맞게 현대화해 추구하고, 말타기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으며 황포돛대 등 다양한 테마의 벽화도 조성했다. 시는 지난해 보문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북천 교량의 강 중심에 위치한 구황교와 일천교의 교각 하부에도 교량의 특성과 도시 이미지를 살린 벽화를 작업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용환 기자

울릉군,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모금 가두캠페인 펼쳐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산타원정대 행사 마련

울릉군은 ‘희망2019 이웃돕기 성금모금’ 기간을 맞아 지난 24일 제3차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이분울 울릉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부단장을 비롯한 단원 등 30여명이 서면 일원에

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을 홍보하는 등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 앞서 울릉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은 산타원정대 행사를 마련해, 지역의 취약계층아동을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학용품 등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한편 울릉군은 올해 7500만원의 성금모금을 목표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19년 1월 말까지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서 활발하게 성금모금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군 관계자는 “나눔과 배려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눔봉사단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울진엑스포공원 카페운영 민간투자자 모집

만 19세 이상 울진군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울진군은 엑스포공원 활성화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원부지 내 200㎡~300㎡ 규모의 공원형 카페신축 민간 투자자를 27일부터 공개모집 한다.

지금까지 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공원 산책과 각종 행사 후 마땅히 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먹거리 또한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울진군은 민간인이 3억원 이상 건축비용을 투자 할 경우 건물 및 토지 무상사용 허가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보장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료 10년간 50% 감면, 주차장 부지제공, 건축 설계비지원, 행정 인·허가절차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개모집에 나섰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울진군으로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카페운영경험과 해당 자격증 보유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유리하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내년 1월 8일, 접수는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엑스포공원 사업소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형삼 기자

“더 공부해 손주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

영덕군, 2018년 성인문해교육 강화

‘2018년 영덕군 성인문해교육’이 지난 22일 영덕생활문화센터에서 마지막 수업을 끝으로 9개월간의 교육일정을 마쳤다. 성인문해교육은 지난 4월 개강해 매주 2회 한글수업과 문해 관련 미술수업을 해왔다. 글을 모르는 성인이 일상적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서툰 글씨지만 내 이름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다. 더 열심히 공부해 손주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강생 김일리(82) 할머니는 지난 9월 경북도청 동라관에서 열린 ‘2018년 경북도 문해대잔치’ 시화전 부문에서 입선했고 이순애(80) 할머니의 시화 ‘엄마의 세월’도 서울세종문화



회관에서 열린 ‘전국 성인문해교육시화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성인문해교실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많은 분들이 한글을 배워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돕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울진농기센터, 연구분야 우수 기관상 선정

해방풍 연중생산·기능성 물질 개발 공동연구 성과

울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원)는 2018 경북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현장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울진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새소득 작물인 해방풍을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기술 정립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산학연과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중 경북농업기술원과 추진한 연구사업은 2개 사업이며 환경농업연구과 최소영 박사과 수행한 ‘해방풍을 이용한 미스트화장품 개발’을 통해 해방풍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 추출방법의 효율성을 증진했다. 또한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서영진 박사와의

2015년부터 해방풍 재배 생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해방풍 동계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기술개발’을 수행해 겨울철 월동 생리를 구명해 동계재배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공동연구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선원 울진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해방풍은 동해안 최장의 해안선 112km를 보유한 울진지역에 특화된 작물이며 피를 맑게 하고 풍을 예방하는 우수한 기능성과 특유의 쌉싸름한 허브향이 일품인 기호성과 다양한 음식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확장성이 탁월하다”며 “앞으로는 해방풍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울진을 대표하는 특화작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 했다. 김형삼 기자

고령군보건소, 보건사업 정상 우뚝



올해 10개 분야 수상 휩쓸어 최고수준 보건소로 인정받아

고령군은 2018년 한해를 힘차게 군민의 건강만 생각하며 뛰었다. 기초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서비스부터 건강증진분야, 의약관리분야, 감염병관리분야, 방문보건분야, 출산지원분야 까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보건소 100여명 직원들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좋은 결실로 맺

어졌다. 지난해 연말 보건사업 6개부분 수상을 휩쓸고 보건사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으로 올해 연초부터 발로 뛰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최우수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상',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우수기관상' 등 10개 부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지난 4월 경북도 주관 보건기념행사를 유치해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성황리에 치뤄내는 등 경북도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수준의 보건소로 인정받아 '도민건강증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또한 8월 14일 경북도에서 제1호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치매가족지원사업으로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산행정복합타운 내 단기치매쉼터를 운영중이며 내년에는 성산보건지소와 쌍림보건지소에서도 단기치매쉼터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김관수 보건소장은 "직원들과 더불어 오직 군민만을 위한 1등 보건서비스로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군민에게 드린다는 각오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기탁 증가

미래의 꿈나무, 인재육성 각계각처서 장학금 기탁

청도군은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한 이후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 속에 89억원의 장학금이 모금됐고, 내년에는 청도군 출연금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돼 2023년까지 150억원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따르면 지역인재양성의 뜻을 같이하는 군민, 기관·사회단체, 출향인 등 각계각처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하고 있어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매월 109명이 400여만원을 정기적으로 기탁하는 월정액 기탁자와 최근 △청도군수의 사회 200만원, △대비사 지연스님 300만원, △재구 청도군향우회 개인택시 200만원, △조담대복집 100만원, △청도군우리음식연구회 100만원, △2010산악회 100만원, △청도군청 차상용 도시과장 100만원, △싱그런건강누리 권순일 대표 50만원, △틸보차원 장재익 대표 100만원, △삼독산업 청도휴사랑 300만원, △청도교육지원청·관내대학교 교사 및 교직원 265만원, △대구한의원 김종용 교수 50만원, △화양을 병곡2리 정동수씨 50만원, △생활개선청도군연합회 300만원, △1978년 초

등학교 졸업 연합 동교회 100만원, △신도정 보화마을 50만원, △이서면 학산1리 심은수씨 10만원, △청도자율방범연합회 200만원, △청도군연연연색연구회 이명숙 회장 100만원, △청도군의 용소방대연합회 100만원, △공각어린이집 70만원, △사암연합회자비봉사단 50만원, △청향회 100만원, △화양건강생활지원센터 100만원, △다솔어린이집 50만원, △경동건설사 전영주 대표 100만원, △쌍경경동산업안전 강신영 대표 100만원, △밝은정신문화원 선지스님 200만원, △청도군청 산악회 150만원을 기탁하는 등 기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도농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은 청도군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수대학 진학생, 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 총 1033명에게 5억3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미래의 꿈나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이승율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기에 장학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도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행 기자

상주시농기센터, 道 농촌진흥사업 평가 '대상'

핵심 농업 인력 양성, ICT 첨단 시스템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농촌진흥사업 전 분야 우수 성과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핵심 농업 인력 양성, ICT 첨단 시스템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농촌진흥사업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2018년 경북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지난 21일 대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사업 대상은 경북도 23개 시군 센터를 평가해 최종 선정됐다. 대상 수상은 경북도농업기술원 이전이 확정되고, 스마트 팜 혁신벨리가 구축되는 상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특히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상주꽃감쌀빵' 개발, 농약안전사용 및 3저·3고 운동 등 시·도·중앙 간 연계사업의 성과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기후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응시험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경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에서는 대상 수상 외에도 농업연구 현장연구우수센터 기관상을 받았다. 기술보급과 과수품질팀(팀장 송석용)은 경북도에서 선정한 3개 우수팀에 포함돼 상을 받았다. 또 유덕근 서부상당소장이 우수연구원상을 수상해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 상주농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다. 피정옥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북도 농촌진흥사업 대상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한 직원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스마트팜의 농업 현장 접목과 청년농업인 육성,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상주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기자

영천시, 계약원가심사 34억원 예산절감

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영천시는 계약원가 심사능력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경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써, 이번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에서는 전문성, 적정성, 독창성 등을 활용한 정성평가

40%, 연간 실적 등을 통한 정량평가가 60%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시행한 계약원가심사에서 386건, 925억원을 심사해 34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했고,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2018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에서 도내 10개 시·군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감사의 말과 "직원들 또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상주 '제8회 대한민국 꽃감축제' 성황리에 마쳐

8만5천여명 방문객 찾아 30억원대 경제유발효과

상주시 외남면 상주꽃감공원에서 '따고 깎고 말고 먹고ing'이라는 주제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제8회 대한민국 꽃감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예종실록에 기록된 상주꽃감진상재현행렬에 '천상의 선물'로서의 상주꽃감을 표현한 예술공연과 '750년 하늘아래 첫 갈나무'에서 상주꽃감공원까지 주민 참여 퍼레이드를 접목한 '상주꽃감임금진상재현행사'를 시작으로 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축제 기간 극단 동지의 창작뮤지컬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꽃감'이 감략원 공연장에서 매일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어린이 관람객에 눈높이를 맞춘 체험형 '쪼까미 쪼까미'도 상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감략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놀이터와, 페이스페인팅, 탈 만들기, 유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고, 중앙 광장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전통무용, 댄스공연, 버



스킹 공연 등이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이어져 문화예술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축제에는 연인원 약 8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 기간 중 꽃감 및 지역 농특산물은 9억원(예약 포함)대의 판매고를 올렸고 30억원대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면 단위 축제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등 동농상생 경제 축제로서도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이태호 기자

경산시, 12월 확대간부회의 열려

혁신적인 징수방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등 내년 15개 분야 현안보고

경산시는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최영조 시장 주재 하에 부시장·국·소장, 담당관·단·과장 및 읍면동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와 '문화와 소통으로 꽃피는 양성평등도시 경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개 분야 현안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는 지난 13일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세입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간부공무원들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주식을 공매해 체납

세를 징수한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보고에서는 '문화와 소통으로 꽃피는 양성평등도시 경산'이란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과정과 앞으로 경산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또한 현안업무 보고에서는 2019년도 지방재정집행 선제적 준비 철저,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활동, 겨울철 산불 방지 대책 등 15개 분야 현안업무에 대해 부서별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당면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최영조 시장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경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 조성 등도 당부했다. 박준범 기자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불진화대 모집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2019년 산불진화대(특수·전문)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2019년 산불진화대(특수·전문)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미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 참여시작일 기준 만 15~34세인 청년층, 만 55세 이상의 장년층은 선발 시 우대된다.

응모 신청은 산림청 누리집 모집·공고 서식을 활용하거나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에 신청서를 교부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464-85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고령 비지정 문화재 지정 및 승격 예고

대가야 고령에서 지금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낮은 등급으로 지정됐던 각종 문화유산들이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승격 심의를 받고 있다.

고령의 대표적 유물인 '고령 지산동 32호분 출토 금동관(국립중앙박물관 보관)'은 보물로 지정 예고 됐고, 지역의 전통사찰인 반룡사의 '목조지장보살좌상' 1구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며 관음사 '아미타여래도 및 신중도' 등 2쪽이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 됐다.

또한 보물 605호인 '장기리 암각화'를 국보로 승격 신청했으며 도지정문화재인 합거리 개실마을의 '점필재종택'과 반룡사 '다층석탑(대가야박물관 보관)'과 개진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 등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다산의 '노강서당 및 고문서'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했다.

문경 매봉산 등산로 새롭게 단장

안전한 목재 데크 계단으로 교체 문경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고 휴식 및 건강



증진의 공간으로 이용되는 매봉산 등산로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번 등산로 정비는 당초에 목계단으로 설치됐으나, 오래되고 습기로 부식돼 등산 시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다 안전한 목재 데크 계단으로 교체를 했다.

특히 천연목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생태복원 및 정비를 했고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 타이어매트를 설치했으며 일부 부식된 침목 계단을 교체했다.

황철환 산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드림스타트, 가래떡 나눔 행사 가져

새로운 해맞이 통해 가족화합의 장 마련

김천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과 가족들이 올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나누고, 새로운 해맞이를 통해 가족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가래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인성교육, 예절교육등 가정의 교육기능회복을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이에 드림스타트에서는 과거 가족이 서로 밥상에서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고, 예절을 배우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나, 부모의 맞벌이, 핵가족화 등 가족 식사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혼자 밥 먹는 아동이 많아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가족간의 관계이며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두 세번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군위군, 통합신공항 성공 길 연다

대구공항 이전 주민협의회 소통간담회 민·관 협업 확대 신공항 성공길 것



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만 군수, 배성기 기획감사실장장과 김동백 통합공항추진기획단장,

주민협의회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관 소통체계의 그 간 운영경과 보고에 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추진상황 설명과 향후 추진절차,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민·관 소통체계 운영에 대한 협의 및 사업 추진전반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도 흔들림 없는 의지와 열정으로 반드시 군위군이 최종이전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은 "공장이 와야 대구·경북이 산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협의회가 주축이 돼 흥

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군위군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민·관 소통체계 구성·운영계획'에 의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소통체계 운영을 목적으로 읍면 자율로 구성, 발족 당시 8개 읍면, 371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조직이 정비되면서 현재 8개 읍면, 501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군은 주민협의회 구성과 함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보고회와 전문가 특강, 공항 주변지역 견학 및 홍보활동을 민·관 협업으로 추진해왔으며, 신년도에는 이러한 민·관 소통체계가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을 해나가 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조국 평화·지역 발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겠다”

민주평통 예천군협의회 이인숙 간사 국민훈장 석류장 윤창호 자문위원 의장 표창



이인숙 윤창호

인정받아 지난 21일 경주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 민주평화통일자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회장 김석환) 이인숙(사진) 간사가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훈장 석류장을, 윤창호 자문위원이 의장(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이인숙 간사는 2009년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해 18기까지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2018년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이번 훈장을 받게 됐다.

또한 윤창호 자문위원은 2007년 제13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해 제17기, 제18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21일 경주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수여식에서 표창을 받게 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예천군협의회 위원인 이인숙 국민훈장 수상 및 의장(대통령)표창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민주평통 예천군협의회 의장 김석환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는 훈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인숙 간사와 윤창호 자문위원은 “큰 상을 받게 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조국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주현 기자

영주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올해의 파트너’ 선정

아프리카 식수난 해결 물 지원 공로 아너 소사이터티 가입 등 기부문화 확산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공모금에서 목표액을 153% 초과 달성하며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한 바 있는 영주에서 이번에는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 활동으로 UN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나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영주시가 지난 21일 유니세프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아프리카 식수난 해결을 위한 물 지원 사업에 동참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경북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영주시는 지난 2012년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처한 해외 오지마을 어린이들의 소식을 접하고 사랑의 물품과기 사업에 참여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에 보답하고자 ‘영주시사

는 생명의 물’이라는 가치아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영주사와 브랜드를 사용하는 영주농산물유통센터와 영주농협, 풍기농협이 함께 참여해 2022년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2일에는 ㈜베리벨벳 이현주 대표와 장옥현 영주시장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주 나눔리더 1, 2호 가입소식이 전해졌다.

‘나눔리더’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개인기부자 모임으로 1년 이내에 100만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 사용보고, 모금회 행사 초청 등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 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전액 영주지역 소외이웃에게 사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새 영주지역에서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터티에 모두 6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

는 1호 김점곤 신도물산 대표이 이어 2호 서익제 영주기독병원장, 3호 장덕흠 에이씨씨엔테크 대표, 4호 김수현 소방공무원, 5호 김무현 소방공무원, 6호 송종박 장수조이월드 회장이 가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평소 절약을 생활화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선뜻 기업을 쾌척했다.

이들 가운데 김점곤 대표와 김수현, 김무현 소방공무원은 부처시간으로, 가족이 함께 기부해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영주시의 인구와 기업수가 대도시에 비해 적지만, 영주시가 나눔 확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고액기부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추위를 녹이고 있다”며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더불어 행복한 영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예천군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명소 탄생

높이 23.5m 하늘전망대 설치 진달래인 참꽃 군락지 조성



예천군에서는 양수발전소 상부댐 부근에 소백산 하늘자락공원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백산의 수려한 경관과 단풍, 진달래 군락지,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

군은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해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올문면 내지리 일원에 표고 730m의 랜드마크인 하늘전망대를 설치하고 3530㎡ 하늘자락공원 조성, 4.7km의 치유의 길 정비, 그리고 특화된 관광지 조성을 위해 4만2300㎡ 공간에 자생 진달래인 참꽃 군락지를 조성했다.

특히, 하늘전망대는 나선형 슬로프를 올라가면서 360도 조망가능한 디자인으로 높이 23.5m의 상부에는 양수발전소 상부댐과 소백산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탄성을 자아내며, 진달래 군락지와 단풍, 치유의 길 등은 봄가를 비경으로 놓칠 수 없는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하늘자락공원 조성으로 천년고찰 용문사, 명봉사, 금당실전통마을, 초간정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

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봄철 개화 때가 되면 주변 경관과 잘 어울어진 멋진 광경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족 친지 연인과 함께 와서 멋진 광경을 마음껏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민선7기 김학동호 출범과 함께 예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회통포↔강권역과 금당실에서 명봉사를 아우르는 용문사권역을 예천 관광의 핵심 축으로 개발해 도청 소재지에 걸맞은 관광 명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봉화군, 명품교육중심도시로 뿌리 내린다

봉화인재양성원 수강생 서울대 등 수시 합격 경사

입시학원 하나 없는 봉화군이 교육중심도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업태향 봉화군수는 지난 24일 오전 군수실에서 2019학년도 주요대학 수시합격 학생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봉화군은 2019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결과 봉화고 3학년 재학생인 김동근군(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임승현군(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등 2명 이외에도 한양대, 육군사관학교, 경희대, 중앙대, 대구교대 등 주요대학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대학 합격생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들은 봉화군이 운영 중인 봉화인재양성원 수강생으로 선발돼 지난 3년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봉화군은 해마다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입학정원을 채우기도 급급한 여건 속에서 매년 여러 명을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실제 봉화 지역에 소재한 인문계열 고등학교 1개이며 학생은 모두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3은 105명이다.

학교에서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획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은 2001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현재까지 76억여 원의 기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학업에 매

진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는 다양한 인성프로그램도 지원해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가숙사 운영 및 특성화 교육 등 기존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 달성을 위해 출연금을 20억원으로 증액해 장학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업태향 군수는 “봉화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위한 꾸준한 지원과 투자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명품 봉화교육으로 전국에서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자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조적인 미래글로벌 인재육성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영양군, 2020년도 국비 예산확보 총력

35개 사업 847억원 목표

영양군은 26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실과단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국비 예산확보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오도창 영양군수는 ‘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일자리 문제,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예년보다 빨리 2회계연도 앞선 국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가졌다.

영양군은 2020년도 신규사업 15건에 총사업비 230억원(국비 103억원), 계속사업 20건에 총사업비 617억원(국비 376억원), 총 35개 사업에 총사업비 847억원(국비 479억원)을 목표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사업실명 등 2019년도 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윤동 기자

안동시, 깨끗한 수돗물 안심하고 마신다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확대 수익 증대 4년 연속 우수물관리 전국 최고수준



안동시는 올 한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가운데 많은 성과를 이뤘다.

시는 의성, 예천 일부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확대해 39억6400만원의 급수 수익 증대를 가져왔다. 또 시간간, 인정부과에서 유량계 교체기 교체로 지난해 대비 23%가 증가한 연간 12억원의 지하수 사용료 수입 증대에 예상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관망을 관리를 위해 37억원을 투입, 노후관 17km를 정비해 유수율 91% 달성으로 4년 연속 우수물관리 전국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급수 보급률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 확대 노력으로 국비지원을 이끌어냈다. 78억원을 확보 녹전면 사천리, 갈천리 일원 16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 원천리, 매정리

까지 확장해 총 486가구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수용가 편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실시간 조회·납부 및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이사정산 등 요금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동시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를 2018년 11월 12일 개통했다. 365일 24시간 실시간 요금조회와 납부, 자동이체 신청, 해지뿐 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로 요금안내 등 다양한 요금관련 민원업무를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용구 기자

의성군, 저출생극복 시책평가 최우수상

고도원 산림치유원장 특강 영주시, 부모교육 실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최대 240만원 지원

의성군은 2018년 경북도 저출생극복 시책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여성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다.

올초에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증액해 첫째 자녀인 경우 2년간 390만원, 둘째 자녀인 경우 3년

간 5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2년간 최대 240만원 및 관내 음식점 이용자 결혼장려금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와 이웃사촌 공동체 정신이 함께 갖춰진 청년이 돌아오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농촌 혁신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는 오는 28일 10시 30분 영주시민회관에서 아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고도원의 아침편지’ 주인공이자 지난 10월 국립산림치유원장으로 취임한 고도원 원장을 초청해 ‘꿈나무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아이와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성기 기자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21일 계사)



1. 2. 3월생은 검은색이 화를 부르니 가급적 피하라. 데이트하려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닭, 돼지, 범피 탓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다.



7. 8. 9월생은 늦게 시작한 사람이 오래갈 수. 결혼하면 자녀 재물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릴 듯. 3. 5. 7월생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집도, 행복도 한꺼번에 날리겠다. 철저한 금전 관리가 필요하다. 북, 서쪽 사람을 기다리라. 되돌아온다.



4. 9. 11월생은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 행할수록 사업은 번창한다. 2. 3. 4. 6월생은 신경 쓰이는 날이 되겠으니 일찍 귀가해 휴식하는 것이 상책이다. 근심 걱정은 마음에서 오는 법. 애정에 지나친 집착을 삼가라.



1. 10. 12월생 가시달을 헤쳐 온 당신이니 사업상 위기도 의지로서 이겨낸다. 1. 2. 3. 4. 5. 6. 7. 8. 9월생은 때나간 날이 좋지 찾아 돌아오겠다. 깨끗한 마음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맞이하라. 아내 잔소리하는 사람의 멜로디로 생각하라. 보약이 될 것이다.



7. 8. 9. 10. 11월생은 말은 기급적 절제하는 것이 실수를 막는 길 1. 2. 8. 10월생은 부모 복도 형제 복도 없으니 자립심이 좋겠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법. 되는대로 사는 것은 금물이다. 내 욕망으로 성공의 향아리를 채우라.



5. 6. 9월생은 미꾸라지처럼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려. 영동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7. 8. 9. 10. 11월생은 사업하려면 포부가 있어야 한다. 욕망을 위해 의지력과 인내심을 보강하는 것이 난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7. 8월생 기계, 자동차 운송업 종사자는 자동차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7. 8. 9. 10. 11월생은 연하, 연상 따지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라. 좋은 인연이 될 수. 미혼자가 짝을 얻는 방향은 북, 동쪽.



4. 6. 9월생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을 읽을 줄 알아야 웃음꽃 피운다.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업보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 2. 3. 4. 5. 6. 7. 8. 9. 10. 11월생은 자연도 이제 성인이니 물어봐도 괜찮다. 숫자. 3. 6. 9가 행운의 수.



7. 8. 9. 10. 11월생은 사업의 욕망을 지금쯤 펼쳐도 좋다. 의료, 금융업 종사자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는 일도 번창하고 인격적으로도 인정받는다. 3. 10. 12월생은 노란색 옷을 입고 애인을 만나라. 내실을 다지자. 현재는 속 빈 강정 꼴이다.



2. 3. 5월생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익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찾으라. 2. 3. 4. 5. 6. 7. 8. 9. 10. 11월생은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 당신이다. 하지만 악용하는 자가 없으니 조심하라. 잔꾀를 부리는 건 성공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중생활이 노출될 때다.



1. 2. 3. 4. 5. 6. 7. 8. 9. 10. 11월생은 인연은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이니 실수를 청리라. 1. 5. 7월생은 대성할 운이다. 신용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늦바람은 중심 잡기 힘든 법이다.



욕심은 불타오르지만 할 뿐 그럴 줄을 모른다. 바람처럼 넓은 마음을 갖자. 8. 9. 11월생은 자연의 화해와 담담함을 배우라.

경주 분황사지·구황동 원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된다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예고 30일간 의견수렴, 결정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된 유적 2건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어도 다른 시기에 제작된 다른 유적이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地)’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地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에 있는 분황사지와 구황동 원지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유지하고 있다.

분황사는 황룡사, 흥륜사와 함께 신라 삼국 통일 이전 왕경인 경주에 조성됐던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존재하고 있다.

장기간 체계적 발굴을 통해 가람 배치 양상과 그 변화뿐만 아니라 경역의 대부분을 규명한 사찰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은 처음 경주 황룡사지와 관련한 전사관 건립 터로 선정돼 1999년 시굴조사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통일신라 시대 석축, 담장, 우물 등 유적을 확인하고, 2004년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원지 유적이다.

원지는 중심부에 크고 작은 인공섬 2개가 있다.

그 주위에 입수로와 배수로, 건물지, 담장, 축대가 조화를 이룬다.

또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원지의 조성 시기, 변화상, 공간배치를 알 수 있어 통일신라 시대 조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구황동 원지는 동궁과 월지, 용강동 원지에 이어 원지의 조성연대, 규모, 내부구조를 확인한 세 번째 신라왕경 원지 유적으로 희소성이 있다.

문화재청은 30일동안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용찬 기자



경주 분황사지 전경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전경

국립대구과학관, 겨울특별전 ‘롤링볼뮤지엄’

구슬의 역동적인 움직임 속 예술과 과학의 융합 체험

국립대구과학관이 겨울방학을 맞이해 공과 키테이크아트를 테마로 한 체험전시 ‘롤링볼뮤지엄’을 내년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이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레일길과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과하는 구슬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작품과 구조물에 직접 굴러보고 만들어보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고 배우는 이색 체험전이다.

‘롤링볼뮤지엄’은 △전 세계에서 수집한 다

양한 롤링볼 작품의 섬세한 과학적 요소를 감상하며 예술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ART존’ △다양한 원목 구조물에 공을 굴리면서 공의 움직임을 체험하는 ‘TRY존’ △롤링볼 작품을 통해 발견한 공의 움직임과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직접 공의 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PLAY존’으로 구성됐다.

국립대구과학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롤링볼뮤지엄’은 유료로 진행되며, 키테이크 아트와 롤링볼 체험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대구과학관 누리집(www.dns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연말 도립교향악단과 즐거운 음악여행

오늘 오후 7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송년음악회

경북도가 연말을 맞아 27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Adieu 2018 welcome 2019’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백진현 상임지휘자가 준비한 기획공연으로, △경북 교향악단 신임악장 신상준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럼펫 수석주자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소프라노 이주희 △도립교향악단 사물팀이 협업해 명곡과 전통를

래시 등을 선보인다. 음악회는 홀스트 작곡의 행성 중 ‘목성’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자’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사라사테의 ‘지오이네트브라비엔’을 신상준 악장이 협업하고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밤새도록 춤출 수 있었으면’을 소프라노 이주희가 들려준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연말을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곡 위주로 구성됐다.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강동진 기자

내년 가정폭력 피해자 최대 500만원 자립지원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 집중지원 프로그램 도입 성폭력 피해자 간호인력 내년 4월까지 39명 충원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50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준다.

여성 대상 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컨설팅과 교육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해 1인당 약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내년 4월까지 39명 늘어난다.

현재 88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총원이 되면 127명으로 증가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 등을 통합제공하지만 간호인력 부족으로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은

여성폭력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피해자에게는 초기상담과 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발생한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실태조사, 교육 등이 실시된다.

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내년 1월까지 26명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동영상 및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에 힘쓴다.

지원에는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포함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소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수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연계한다.

의사소통과 사회적 인식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내년 5월까지 권역별로 신규 설치한다.

이곳에서는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지역 양성평등 4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하고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담당하게 된다.

뉴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평 편집인·편집국장 김성용 주간 김재열

대구시 동대구로 85길 60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톡! 톡! 톡!

가는 TALK이 고와야

오는 TALK이 곱다!

욕설과 비속어는 물론, 이해하기 힘든 단축어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청소년 시기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이후 사는 삶 역시 거칠고 타인과 본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계명문화대, 일자리창출 대통령 표창

김민규 국제교육행정 팀장, 청년해외진출 분야 장관표창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호주·싱가포르 등 116명 취업

계명문화대학교가 '2018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일자리창출지원 단체분야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체계화된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취업처를 진로취업처로 개편했다.

진로 및 취·창업지원 총괄부서로 격상하고 산하에 진로지원팀, 취업지원팀, 창업지원센터 등을 두는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업무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명호 총장은 "어려운 취업환경에도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학생 취업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인성과 실무역량이 융합된 인재 양성과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규 국제교육행정 팀장이 '청년해

외진출 분야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2012년부터 재학생들의 해외취업 강화를 위해 대학자체의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까지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에 116명의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했다. 김민규 팀장은 "이번 정부포상은 해외취업 희망학생들의 여학 및 직무능력을 갖춘 수 있도록 글로벌 존 등의 대학 인프라가 잘 갖춰 있어 가능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노력해 성공적인 해외취업자가 배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와 함께하는 100번째소프트웨어 수업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 관내 100개교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대구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윤여선)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올해 4월 16일 남대구초등학교 4학년생을 시작으로 12월 24일 대구동일초등학교까지 대구 관내 100개교, 1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무인 지상열차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전통놀이 소프트웨어 △로봇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주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컴퓨팅 사고력 신장과 더불어 학교 현장의 소프트웨어교육 수업 지도 역량을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12월 24일, 100번째로 찾아가는 대구동일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직접 산타클로스가 되어 소프트웨어교육 수업을 진행해, 즐거운 분위기

에서 수업이 진행됐다. 교육연구정보원 윤여선 원장은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학습능력 및 SW메이커십, 코딩 랩 등을 갖춘 '대구 SW교육지원·체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향후 학생 및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SW교육 인식 확산 및 SW교육 활성화에도 더욱 힘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경수 기자



유치원 무단폐원 대응 '학부모 불안 없앤다'

비리신고센터 확대 고충지원센터 개통 미흡한 대응 교육부가 직접 상황점검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가 27일 개통된다. 교육부는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기준 106개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충지원센터는 폐원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나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의 사례를 접수 받는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02-6222-6060)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사안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대응과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폐원 예정인 유치원의 유아 지원 계획이나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 계획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남은 정원 정보와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신속하게 안내해 유아들이 안정적인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해 교육지원청에도 배포한다. 뉴시스

대구한의대 이봉효 교수, 3대 인명사전 '평생공로상'

세계 3대 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모르핀 중독 침 치료 효과 실험 입증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가 수여하는 '2019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봉효 교수는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모르핀 중독에서 급성기, 만성 재발, 금단 증상 등 여러 단계에서 침치료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동물실험으로 입증하고, 침 치료의 효과가 뇌신경 전달 체계에서 어떤 경로와 관련돼 있는지 규명하고 있다. 이봉효 교수는 2017년도에 이어 3년 연속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최경수 기자

전문대 정시 2만7455명 선발...간호·보건계열 23.7%

29일부터 원서접수 지원횟수 제한 없어 내년 1월 4일 양재 AT센터서 박람회

전국 136개 전문대학이 내년도 정시모집으로 2만7455명을 선발한다. 전문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처럼 지원횟수가 제한되지 않아 대학 간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26일 발표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따르면 오는 29일-내년 1월 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월 8일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원합격자 발표는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내년에도 전문대학은 일반전형은 통해 올해 1만7281명보다 2151명(6.6%)이 줄어든 1만51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별전형은 정원내로 올해 1956명 대비 255명(0.8%)이 감소한 1701명을 모집한다. 반면 정원 외는 올해 8762명보다 1862명(7.4%)이 증가한 1만624명을 모집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 4236명(15.1%) 보다 1933명(7.4%) 늘어난 6169명(22.5%)을 모집한다. 오는 28일까지 수시모집 최종합격자가 발표되면 미충원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돼 실제 모집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문대 정시모집의 주요 전공분야는 간호·보건 분야로, 6504명(23.7%) 수준이다. 기계·전기전자 분야는 5217명(19.0%), 호텔·관광 분야 2976명(10.8%), 회계·세무·유통 분야 2653명(9.7%),디자인·뷰티 분야 2102명(7.7%) 순이다.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는 동일한 전공명이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과정 또는 3년 과정, 4년 과정으로 나뉜다. 한 예로 간호학과는 84개교의 전문대학이 4년 과정을 운영하며, 2개교는 3년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 지원 시 관련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능 위주 전형은 가장 많은 1만2146명(44.2%), 서류 위주 전형으로 6888명(25.1%),

학생부 위주 전형 3444명(12.5%), 실기 위주 전형 2655명(9.7%), 면접 위주 전형으로 2322명(8.5%)을 모집한다. 앞서 수시모집에서 어떤 대학이든 합격했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곳만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입학 지원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추후 전산자료를 검색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된다. 전문대학은 정시모집 원서 접수기간 이후 대학은 결원 충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입시 마감 일인 내년 2월 28일까지 자율모집을 실시한다. 정시모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있다면 대학별 자율모집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대교협은 수험생들에게 상세한 정시 입학정보와 일대일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4일-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에이티)센터 제2전시관에서 '2019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시박람회는 전국 80개 전문대학이 참가한다. 뉴시스

2019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2019. 01. 04. 금 ~ 06. 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양재 aT센터 제2전시관 (신원동 신원초등학교)

문의: 02-2600-8800 (신원동 신원초등학교)

02-2600-8800

www.artistree.or.kr

예술나무운동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적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범국민 문화예술 후원입니다.

ARS: 060-600-0006 예술나무: www.artistree.or.kr

‘예술’은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나무’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17업 10예술나무 문화예술 후원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공헌까지 함께 합니다.

1인 10예술나무 문화예술 후원 당신이 7은 예술나무부터 시작합니다.

ARTISTRE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음 든든~ 보장 든든~♪ 더 든든해진 장기요양보험!

경증치매 어르신도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려 경제적 부담을 낮춰드리는 본인부담 경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든든해집니다~



경증치매 어르신까지 더 안아드리고 싶기에 [인지지원 등급 신설]

| | | |
|----------------------------------|----------------------------|-----------------------------|
|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월 한도액 관계없이 지원받는
치매가족휴가제 |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혜택 |
|----------------------------------|----------------------------|-----------------------------|

※ 장기요양상담 - 1577-1000, 치매상담 - 1899-9988

경제적 부담을 더 덜어드리고 싶기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건강보험료 순위 | | 25% 이하 | 25~50% 이하 |
|----------|------|-----------|-----------|
| 본인부담률 | 시설이용 | 10% ⇒ 8% | 20% ⇒ 12% |
| | 재가이용 | 7.5% ⇒ 6% | 15% ⇒ 9% |

※ 25%이하 - 본인부담 60% 경감, 25~50% 이하 - 본인부담 40% 경감